

증평군
개청 20주년



“증평에 우리 집을 처음 지었을 때
양옥집으로 지었거든. 장동에서
처음이었어. 그때 입식으로 제대로
지었거든. 그래서 그런지 동네
사람들한테는 우리 집이 구경거리였어.”

빛장뜰마을 주민 홍석원 님

증평, () 집 ()



2023.08.30.wed
— 10.30.mon



증평기록관
JEUNGPYEONG ARCHIVES



월~토요일, 10시~18시
추석연휴 9/28~9/30 휴관



“이 동네를 걸어 다니다보면 시골의 정취를 느껴요.
어르신들께서 밖에 나와서 하루종일 앉아 계시고, 발일하러
다녀오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조금만 걸어
나가면 스타벅스나 도서관, 보강천 이런 델 너무 잘해놨어요.
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요.”

이주 청년 부부 김종면 박미래 님

증평기록관
증평읍 원도심
옛 성모유치원

曾坪

증평

기억이 살아있는

集

집

증평군 개청 20주년



증평기록관
JEUNGPEONG ARCHIVES

2023.08.30.wed —————> 2023.10.30.mon

증평기록관

증평읍 원도심

옛 성모유치원

나는 미암리가 고향이라 상호를 '미암상회'로 걸은 거야. 그때 꼬마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'우리 미암상회, 우리 미암상회' 했었는데 [redacted]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해. * 저희 아버님이 49년도에 증평면에서 면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셨죠. 그때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[redacted] * 읍사무소가 장동리에 있을 때부터 재건상회로 장사를 시작했는데, 사람들 행동반경이 이쪽으로 넓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읍사무소가 예식장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장사가 제법 괜찮았지. * 증평이 농사짓기에 참 괜찮았어요. 옛날에 나 시집을 때는 인삼밭이 짝 깔려있었어. [redacted] 품팔이 하시고, 농업 소득 이런 쪽도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* 대학 졸업하고서는 첫 직장을 증평에서 가졌어요. 그 당시에 지역 신문인 증평 신문이 창간을 했거든요. 거기 [redacted]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거죠. 같은 지역 출신 멤버들 셋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렇게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했었어요. 기자 말고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. * 옛날에 담배 농사짓는 사람이 참 많았어 요. 동네마다 [redacted] 대표로 영업초 관련 일을 처리하고 조합 이랑 교섭했어. * 미국인이 담배 공장을 운영하 는데, 담배를 영어로 써나가니까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더라고. 그래서 ABC를 배워가고 그랬지. * 천주교 [redacted] 그때 외 국 신부들이 와서 의사로 있었어. 주변에는 변변한 병원들도 없었고, 거기만 신식병원이었어. 우리 식구들도 몸이 아플 때 항상 거기 갔고, 나는 우리 어머니를 [redacted] 진료를 아 았간은 현재 '그랜드모텔' 자리에 있었어요. 방앗간 구조는 한 10평 계가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을 부어가며 쇠절구 마냥 돌 어요. 그 앞에 물이 고이는 [redacted] 금 방앗간에서 나온 들가루를 아낙네들 이 늦그릇 담는 데 사용했어 요. * 읍사무소 가 처음 [redacted]에는 지금 군 청자리, 그 앞에 조그마하 게 있었어요. 역전에 있다가 협소하니까 궁전예식장 자리로 이전했었지. * [redacted] 건물은 창고 였어. 6·25 사변 나고 제 대한 상이용사들이 영사 기 가지고 상영을 했지. 극장에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때 돈 이 없어서 우리 [redacted] 화장실로 해서 짜비쳐서 몰래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, 어떤 사람은 들어가 다 똥간에 [redacted] 똥구린내가 나고 그랬다고. '콩쥐팍쥐'하고 '장화 [redacted] '춘향전' 그런 거 많이 했지. 그때는 번사가 와서 화면 돌리면서 마이크 들고 끊어가면서 했어.

2023.08.30.-10.30.

증평기록관 증평읍 원도심 옛 성모유치원

월-토요일, 10시-18시
추석연휴 9/28-9/30 휴관



증평군 개청 20주년



증평, 기록이 쌓여있는 집